학생·교사·학부모 '인권조례' 만든다

전남도교육청 전국 첫 제정 추진 … 내년 신학기부터 적용

전남도교육청이 교육의 주축인 학생·교사·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아우르는 인권조례 제정에 나섰다. 교육 주체들을 포괄하는 조례 제정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전남도교육청은 2일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권, 학부모의 권리 등을 담기 위해 '학생만을 위한 인권조례'가 아닌 '교육공동체 인권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 학부모의 권리가 상충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도 교육청은 이를 위해 학교, 학부모, 시민단체, 교수, 법조계 등 17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지역별 공청회, 토론회, 학생참여기획단 운영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자문위원회는 학생, 교사 등 영역별로 나뉘어 자료수집, 연수, 설문조사, 법률적 검토 등을 한 뒤 조례안을 만들 계획이다.

또 교직원과 전문직 10여명으로 실무단을 구성, 학생, 교사, 학부모 등 세 영역이 조화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만들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조례안이 내년 2월 도의회를 통과하면 신학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조례안에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교육주체가 행복할 수 있는 학교 공동체를 일구기 위한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자는 2일 체벌금지, 강제적 보충, 자율학습금지, 성적공개 및 우열반 편성금지, 골자로 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2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과 '인권증진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양 기관은 결혼이주여성과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전남도 제공〉

"도민·사회적 취약계층 인권증진"

전남도, 인권위와 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전남도가 국가인권위원회와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도민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증진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와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오후 전남도청 정약용실에서 박준영 지사와 현병철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증진을 위한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전남도는 양해각서를 통해 인권업무를 체계화해 발전시키고 지역 현실에 맞는 도 차원의 인권정책을 마련, 도민의 인권신장에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는 등 법적 뒷받침을 마련하고 인권실태에 대한 공동연구와 조사도 할 방침이다. 또 결혼이주여성인권, 노인인권, 장애인인권, 노동인권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장하는데 국가인권위원회와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박 지사는 "인권증진 교류협력 협약은 인권정신을 널리 알리고 자긍심을 고취시켜 전남이 인권 선진지로서 소임을 다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11월 11일 '보행자의 날'

국토해양부는 11월11일을 보행자의 날로 지정하고, 오는 7일 오전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정종환 장관과 정운찬 전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보행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보행자의 날'은 보행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인 의식을 고취하고 생활 속에서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됐다. 이날 행사에는 체육인 및 걷기 동호인 등 3000여명이 참석한다. /연합뉴스

광주도시공사 비위·부적정 업무 '수두룩'

공공시설 운영·개발사업 52건 적발 5억여원 감액

광주시도시공사가 공공시설 운영이나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비위나 부적정한 업무처리로 적발된 사례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광주시도시공사가 광주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광주시 감사에서 무려 52건이 적발돼 징계조치와 함께 5억3200만여원이 감액조치됐다.

또 자체감사에서도 22건이 적발돼 주의와 경고, 감봉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광주시 감사에서는 공사와 관련한 지적사항이 상당수에 달했다. 평동2차산업단지 전기공사 가로등제어반이 도급내역서에 중복계상되는가 하면, 하남2 공공임대아파트 건립공사나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공사에도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지적됐다.

노인건강타운 2단계 조성공사 실정보고 시 공사비 수천만원을 과다계상했으며, 지하층 바닥 도장공사나 전통모터 보호 패널 등의 시공이 부적정하게 이뤄졌다.

상무지구 콜센터 건립공사도 원격검침시스템이 잘못됐고 누수감지시스템도 과다설치된 것으로 지적됐다.

혁신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순환골재 사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일부도 지켜지지 않았다.

자체감사에서는 실내빙상장 수입금 관리 소홀이나 영산강 골재입찰 절차 미흡 등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광주시도시공사 관계자는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와 감액 등 적절한 조치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식품, 필요한 만큼 가져 가세요"

여수·영광에 저소득층 대상 '푸드마켓' 오픈

전남도는 2일 여수와 영광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랑과 행복나눔 식품지원가게'(푸드마켓)를 개점했다고 밝혔다.

푸드마켓은 전남도가 효율적인 기부 식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공모에 응모해 선정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후원받은 기부식품을 저소득층에게 일방적으로 배분했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푸드마켓 이용 대상자가 필요한 물품을 직접 가져갈 수 있는 슈퍼마켓 형태로 운영된다.

기업체, 개인, 단체 등이 기부한 식료품이나 공산품 등을 신빈곤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 계층 주민이 푸드마켓을 방문해 회원등록 후 무료로 가져갈 수 있다.

전남도내에는 전남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햇살나눔식품지원가게(푸드마켓)가 지난해 8월 목포에서 문을 열어 1년여동안 저소득가정 447가구에 2만9200여건의 주식, 간식, 식재료 등 다양한 생필품이 무상으로 지급됐다.

/장필수기자 bungy@

빛日만평

- 김종두

제대로 한바탕 붙을 모양이다

광주시 하자 공사는 모두 조경사업

지난 2년간 33건 발생

광주시가 지난 2년 동안 발주한 사업 중 모두 조경 관련 사업에서만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광주시가 광주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2009~2010년 광주시 발주공사 하자보수 내역'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발생한 하자보수 건수는 총 33건으로 모두 조경분야 사업이었다.

'상무지구 비둘기로 가로숲 조성공사'와 '전국체전대비 제1구간 가로조경 정비사업', '상록근린공원 조성공사', '우산근린공원 조성공사' 등에서는 식재한 청단풍과 동백, 느티나무 등이 고사해 이를 교체했다.

또 '신가근린공원 생태숲 조성공사', '상록근린공원 야생화 식재공사', '송암로 가로숲 조성공사', '운천초교~시민공원 가로숲 조성공사', '예술의전당 보행자도로 녹지조성공사' 등에서도 하자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서도 광주시가 발주한 조경 관련 공사 4건에서 하자보수가 실시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조경 관련 공사의 경우 토양이나 기상 등의 영향으로 일정 부분 고사피해가 발생하지만 그 비율이 높은 편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언론 공개

앞으로 2년 이상 체납한 지방세가 3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납세자가 모든 지자체의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또 승강기 등 노후 시설물을 교체·수선할 경우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서민 아파트 소유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재정적 부담 능력에 상응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제를 도입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연합뉴스

김치 원산지 위반 54곳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11~29일 배추 수입업체, 김치제조업체, 양념류 가공업체 등 5296곳에 대해 원산지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45곳은 형사입건하고 9곳은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품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중국산 신선 배추와 절임 배추를 국내에서 김치로 제조하거나 중국산 김치에 국산 부추 등 양념류를 추가하고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형태의 수법이 적발됐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생각보다 좋은 비누 평미인

평미인은 (사단) 아세아-태평양 자연 의과학 연구재단에서 제조기술을 제공한 것으로 우리 몸 속 70% 물과 외부에서 씻는 물을 동조시켜 피부통로를 열리게 하여 몸속의 필요없는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나오게 하는 원리 입니다.

✻ 주요성분
- 특수 숙성한 식물성 유지
- 살구씨 오일 및 분말
- 100% 천연향 로즈마리
- 천연신소재 HJ-1.2
- 글리세린

✻ 사용범위
- 모든 환자의 전신 목욕
- 유아목욕, 노인 냄새 제거
-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
- 잦은 화장을 하는 여성
-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
- 환자를 많이 다루는 사람
- 피부질환(아토피, 여드름, 무좀, 습진, 비염)
- 치질로 고생하는 사람

비누 사용시 유의사항
- 5분간 2회 이상 비누 맛사지
- 보관시 다른 비누와 따로 보관
- 처음사용시 5분 2회 손·발 맛사지 후 사용

◆ 광주·전남·북 판매점 모집 ◆
상담문의 ☎ 010-3231-3665

먹어야 해결된다. 여성전용 먹는 탈모제품의 특징
여성탈모, 무모, 이제 고민 끝!

그동안 남모르게 고민해오던 여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던져주고 있어 화제이다. 여성의 탈모의 원인은 모낭의 영양결핍입니다. 남성의 탈모의 원인은 모낭위축입니다. 원인이 다르면 제품도 달라져야겠죠? 모근에 영양공급이 바르고 감아서 해결될까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먹는 방법뿐입니다.

머리카락이 굵어지며 배꼽아래 체모가 풍성해진다.

(통신판매신고증 제19-5301호)

大히트 오래~ 오래~
신상품 롱~링

남자의 발기능력은 자기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왜소하고, 빠르고, 힘이 없고, 남성의 3대 고민은 오래~ 오래~ 롱~링으로 개선하자. 자동으로 흔들어 주고 떨어주며 롱링은 소프트하고 무게감이 없고 반영구적이며 위생적으로 탁월하여 여성으로부터도 호감을 받습니다. 생노병사 불노장생 책을 드립니다.

본 제품은 의료기가 아닙니다

02-2068-4142 010-3518-8995
02-2068-4143 010-3611-8272

손해사정사
大 개강 11월6일(土)
시험예정 : 2011년 4월 24일(1차)
• 보 험 계 약 법(土)- PM 2~8시
• 자동차보험이론(日)- PM 2~8시
<2개월 완성>
최고 수준의 강의로
여러분의 합격을 책임집니다.
새롬행정고시학원
☎ 268-8111~2

새롬행정고시학원 • 광주점 361-8111 • 전대점 268-8111
공인 중개사 특강
전국최강 새롬교수진 전원 서울에서출강!
전국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50명의 출제위원급 교수진과 50개 학원 네트워크를 통해 합격시키는 강의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개강 11月8日 주간반 야간반
재직자 국비지원 선착순60명
합격을 원하신다면 싼 수강료, 집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교육기관을 선택하지 마시고, 높은 합격률의 조건을 갖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새롬을 선택하십시오!!
www.gjserom.com 【http://cafe.daum.net/gj8111】
새롬공인중개사전문학원
광주점(서구청앞) 361-8111 전대점(전대후문앞) 268-8111